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고래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고래실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고래실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고래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고래실	고래실	고래실	고래실
고라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고래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

☞ 고래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고래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고래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고라실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고래실
19세기20세기현재
- 고라실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고라실, 고래실



고래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고래실’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고래실’은 ‘고래’와 골짜기를 뜻하는 옛말 ‘실’이 결합한 것으로, ‘고래’ 역시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이 포함된 말로 추정된다. 19세기에 ‘고라실’도 보인다.



문헌 속의 고래실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고라실, 고래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고라실, 고래실



출처 1880 한불사전 193

용례 01

66 문헌 용례

고라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5

용례 02

66 문헌 용례

고래실 [水畚].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1:270

용례 03

66 문헌 용례

고래실 [水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고래실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고래실

출처 1932 동아일보 2월 9일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웃에는 편웃 놀 때에 한편이 『고래실』(汗乾) 또 한편이 『마른실』(乾畚)이 되어 고래실 편이 익이면 한답 농사가 잘되고 마른실 편이 익이면 건답이 잘된다는 것을 판단함이라 하였다.

현대어 풀이

웃에는 편웃 놀 때에 한편이 ‘고래실’(汗畚(한답)) 또 한편이 ‘마른실’(건답)이 되어 고래실 편이 이기면 한답 농사가 잘되고 마른실 편이 이기면 건답이 잘된다는 것을 판단함이라 하였다.

출처 1933 동아일보 8월18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고래실은 매우 풍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6월19일 7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삼남에는 오월 한 달을 내쳐 가물어서 고래실 땅에도 호미 모를 낸 데다가 만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고래실에 관한 주석

‘고래실’의 ‘고래’를 ‘방고래’의 ‘고래’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골짜기를 뜻하는 ‘골’에 접미사 ‘-애’가 결합하여 ‘고래’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한불자전》(1880)에는 산의 논을 뜻하는 ‘고랑이’가 나오고 《국한회어》(1896)에는 물이 흔하고 기름진 논을 뜻하는 ‘골답’이 나오는 점도 ‘고래’가 ‘골’과 관련되었을 방증이 될 듯하다. [예1] 고랑이[谷畚] <1880 한불자전 193> [예2] 골답 汧畚. 水畚 <1896 국한회어 곤:29>

고래실 관련 낱말

고래002

고래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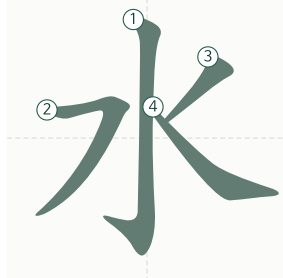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고래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水

뜻·음 물 수
총 4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水/

畚

뜻·음 논 답
총 9획 · 부수 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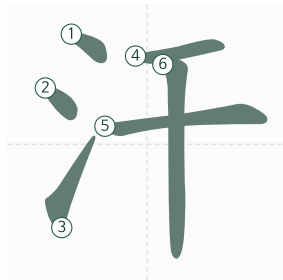
畚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畚/

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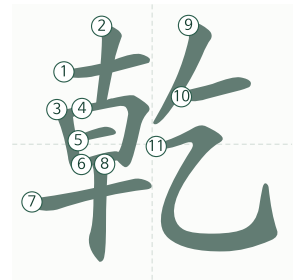
뜻·음 땀 한
총 6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汗/

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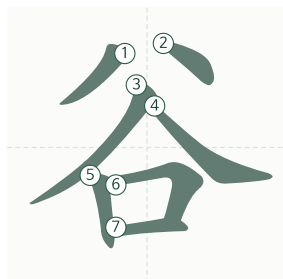
뜻·음 하늘·마를 건
총 11획 · 부수 乙



hanja.wordrow.kr/한자/乾/

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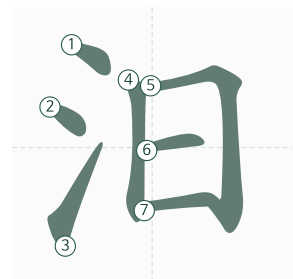
뜻·음 골 곡
총 7획 · 부수 谷



hanja.wordrow.kr/한자/谷/

汨

뜻·음 골물할 골 / 물이름 먹
총 7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汨/